

# 엔터테인먼트

## Entertainment

### 견미리가 추천하는 태진아 새 음반 발표

트로트 가수 태진아(54)가 새 음반 '견미리가 추천하는 태진아의 베스트 카페 뮤직'을 발표했다.

견미리가 선곡한 노래를 담은 이 음반은 태진아의 자작곡인 신곡 '그저 그렇게'를 비롯해 조용필의 '정', 장현의 '미련', 나훈아의 '찾잡의 고독', 구창모의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등 리메이크 곡들로 채워졌다.

두 사람은 견미리가 태진아의 콘서트와 디너쇼 게스트로 참여한 인연으로 돈독한 친분을 쌓게 됐다.

이후 태진아의 뮤직비디오 '잘났어 정말' '이유가 뭐가' 등에 출연한 견미리는 이번엔 수록곡 선곡은 물론 음반 재킷과 속지 모델로도 등장해 태진아를 감동시켰다.



## 왕년의 가수들 돌아온다

2007년 젊은 남성들이 가수 이효리에 열광한다면 1990년대 젊은이들에게는 하수빈, 이지연이 있었다. 주로 청순미를 강조했던 이들 여자 가수들은 어린 나이에 데뷔, 짧은 시간 활동하다 무대에서 사라져 팬들에게 아쉬움을 줬었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주름잡았던 여자 스타 가수들이 속속 컴백하고 있다. 최근 '7080' 세대를 중심으로 한 TV 가요 프로와 콘서트 등이 인기를 끌면서 오랜만에 무대에 선 왕년의 가수들이 음반 발매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기 시작한 것.

특히 이들이 불렀던 노래는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후배 가수들에 의해 끊임 없이 리메이크되면서 '그 때 그 시절'을 추억하는 이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있다.

'인디언 인형처럼' '빙글빙글'의 가수 나미(49)는 아들과 함께 부른 듀엣곡으로 컴백했다. 독특한 음색의 그녀가 공식적으로 노래를 접은 지는 15년이 넘었지만 '슬픈 인연' 등 그녀의 히트곡들은 여러차례 리메이크 돼 왔었다.

음반 제작과 공연 제의를 수도 없이 뿌리친 나미는 아들인 가수 정철이 최근 발표한 'IF I COULD'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다.

1990년대 당시 가수지와 함께 젊은 남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수였던 '노노노'의 하수빈도 2월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 1992년 이후 15년만이다. 하수빈이

### 나미도 아들과 함께 듀엣곡 컴백



나미(왼쪽)와 그녀의 아들 정철.

긴 생머리에 꽃으로 장식한 모자를 쓰고 손가락을 귀엽게 흔들며 '노노노'를 부르던 당시의 모습은 못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캐나다 등에서 의상공부와 패션 사업을 병행한 하수빈은 최근 음반사 '라 스텔라'를 설립하고 유제하 가요제 출신의 더필름의 데뷔음반을 만든 데 이어 2월에는 자신의 음반을 만들 계획이다.

1973년 등장 당시 '청순미의 대명사'로 꼽혔던 헤은이(50)도 11년만에 앨범을 내고 가요계로 돌아온다.

작곡가 길옥윤과 콤피미를 이뤄 '당신은 모르실거야'

'진짜 진짜 좋아해'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고 각종 가요상을 휩쓸었던 헤은이는 이승철의 '소리쳐'를 만든 흥진영이 작사·작곡한 '강해야 돼'로 다시 팬들을 만난다.

특히 그녀의 컴백은 인터넷 팬클럽 회원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이어서 더욱 화제가 됐다. 그녀를 잊지 않고 있던 팬들이 후원금을 모아 직접 유명 작곡가의 곡을 구입, 꼭 다시 가수로 활동하기를 간곡히 부탁한 것.

새 음반에는 신세대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라틴 댄스풍의 '강해야 돼'를 비롯, 발라드곡 '여전히', 히트곡 '제3한강교'가 리메이크 되어 실려있다.

1991년에 발표한 '유혹'으로 인기를 모았던 이재영도 가수로 컴백을 준비중이다. 현재 정준하 등과 뮤지컬 '폴몬터'를 공연중인 이재영은 '그리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등에 출연하며 뮤지컬 배우로 입지를 굳힌 상태. 새 음반 작업을 구상중인 이재영은 7080들을 대상으로 한 노래를 중심으로 음반을 발매할 계획이다.

그밖에 지난 1982년 '나를 나를 잊지마세요/머리부터 발끝까지'로 시작되는 '나를 잊지 마세요'로 인기를 누렸던 국보자매도 10년만에 국악가요 '삼청이와 춘향이'로 컴백했으며, '밤차'의 이은하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달자의 봄'서 자유연애자 신세도 역 공형진

## “저도 총각 팬 연애 고수...배역 딱이죠”

“저도 총각 때 연애 고수였습니다. 하하하”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에서 '멜로'와는 거리가 먼 캐릭터를 주로 맡았던 배우 공형진이 제대로 된 배역을 만났다.

KBS 2TV 수목드라마 '달자의 봄'(극본 강은경·연출 이재상)에서 그는 두 여자 사이를 오가는 자유연애주의자 신세도 역으로 출연 중이다.

세도는 세련된 매너와 쾌적 감각을 자랑하는 호소풍 채널 PD로, SBS 드라마 '연애시대'에서 그가 보여준 모습과는 정반대 캐릭터이다.

공형진은 “자유연애자 신세도 역을 맡았

는데 참 재미있는 친구”라며 “나도 학교 다닐 때 인기가 많았고 총각 때 연애 고수였다”며 웃었다.

그는 이어 “바람둥이라고 특별히 뭐 비법이 있다기보다는 항상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대방 마음에 진심으로 다가갈 때 결과가 좋다”고 고수다운 연애의 ‘기술’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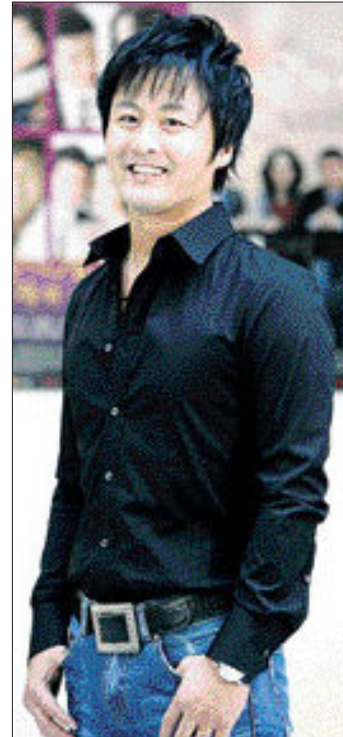
실제로 공형진은 ‘달자의 봄’을 통해 ‘웃기다’는 반응과 함께 ‘멋있다’는 찬사까지 받고 있다.

한 여성 시청자는 게시판에 “항상 어수룩하거나 코믹한 역할만 봐왔는데 어제 보니 멋지더라”며 “처음에는 ‘미스캐스

팅’이 아닌가 했는데 나름대로 정말 여자에게 매력력을 만한 모습이었다”고 칭찬했다.

공형진은 “‘달자의 봄’을 만나 행복하고 즐겁다”면서 “그동안 내가 선택한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뻐했는데 ‘달자의 봄’도 여러분에게 사랑스러움과 즐거움을 드릴 것이라 믿는다”고 작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이번 드라마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과 동료들을 만나게 돼 출연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대단히 즐겁게 일하고 있으며 좋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10 BOX OFFICE

### 영화

순위	제목	서울관객	전국누계
1	에라곤	10만 2천600	50만 4천600
2	미녀는 괴로워	10만 1천600	51만 4천600
3	허브	9만 800	44만 2천800
4	데자뷰	7만 7천600	27만 2천100
5	박물관이 살아 있다	7만 3천900	41만 3천300
6	데스 노트 리스트 네임	6만 3천500	34만 7천600
7	블러드 다이아몬드	5만 3천800	17만 3천700
8	목공	4만 3천000	18만 7천
9	부그와 엘리엇	1만 7천300	28만 3천800
10	조폭 마누라3	1만 2천200	162만 4천900

(단위:명) (자료제공:필름 2.0)

### TV

순위	제목	방송국	시청률
1	주몽	MBC	46.2
2	열아홉 순정	KBS1	40.0
3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SBS	24.9
4	개그콘서트	KBS2	23.9
5	무한도전	MBC	22.2
6	누나	MBC	21.7
7	연개소문	SBS	21.6
8	개그콘서트	KBS2	21.1
9	일요일일요일밤에	MBC	18.6
10	상상플러스	KBS2	18.4

(단위:%) (자료제공:TNS리서치)

### 비디오

순위	제목	장르
1	거룩한 계보	드라마
2	미션 임포서블3	액션
3	예정결말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	코미디
4	쓰우3	스릴러
5	괴물	드라마
6	기문의 부활	코미디
7	일본침몰	액션
8	이라크 워	전쟁
9	누가 그녀의 잠을 깨?	코미디
10	리디오스타	드라마

(자료제공:세네타운)

### 가요

순위	제목	가수
1	마리아	김야중
2	잔소리	디너츠
3	사랑-후에	혜성 & 린
4	더티 캐시	빅뱅
5	애니스타	이효리
6	앤 디자인	문근영
7	가지마	브라이언
8	볼때가 사랑	엠시디맥스
9	사랑이 다 그런 거니까	웍스
10	흰 눈	이루

(자료제공:벅스뮤직)

**2007년 중국 명문대학 입학반 모집**

2007년 9월 중국대학 1,2,3학년 입학 및 원정

2008년 9월 본고사 대비

2007년 9월 동리대 입학

동아외국어학원

www.littlechina.com

233-9582

**토익 만점 기록 11회 대행진!**

목표점수까지 무한반복수강!

990점 만점반, 600점 목표반, 660점 목표반, 초등중학성반

동아외국어학원

082-222-6253